여래사불교대학, 환우 위한 따뜻한 병문안

제7회 인창병원 환우 방문 위로연



여래사불교대학(학장 목종)이 추운 겨울 따뜻한 병문안을 다녀왔다.

여래사불교대학 학생 50여명은 2월 2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인창병원을 방문했다.〈사진〉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환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빠른 쾌유를 발원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각 병실을 방문하고 환자들의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며 카스테라와 과일, 요구르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웃음으로 격려했다. 또한 작은 음악회를 마련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조계종 신도전문 교육기관으로 30여 년 동안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산 동구지역의 복지와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독거노인 반찬배달 등을 실시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설을 맞아 따뜻한 겨울나기와 환우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환자를 비롯해 가족들 그리고 병원 종사자들이 아픔을 잠시라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전주교도소 교정협, 설맞이 사과 나눔행

1월 26일 재소자들에 사과 1,500개 전달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승천, 일광사 주지)는 설을 앞둔 1월 26일 전주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사과 1,500개를 전달했다.〈사진〉 이날 자리는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와 불교 · 기독교 · 원불교 및 일반교화 분과위원장들이 전주교도소 내 전체 수용자들에게 설 맞이 사과를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승천 스님은 설 선물을 마련해준 불교분과 진성 스님, 기독교분과 오성택 목사, 안현숙 원불교 봉공회장, 일반분과 위원장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설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이 정성으로 가져온 사과를 맛있게 드시고 고향의 가족을 생각해 열심히 수용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만 전주교도소장은 "재소자들이 수용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추운 겨울마다 매번 사과를 주셔서 수용자들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정유년 신년하례법회 봉행

회주 월주 스님 "자비의 등불 밝히자"



금산사 본말사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아 원대한 원력과 포부를 세워 보살행을 다짐했다.

전북지역 불교 중흥과 지역발전을 다짐하는 금산사 신년하례법회가 1월 29일 금산사 뇌묵처영기념관에서 열렸다.〈사진〉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과 주지 성우 스님, 익산 심곡사 화평 스님, 익산 관음사 덕림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송하진 전북지사, 정동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월주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당시의 사상적 혼란과 정치적 관행,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균형등을 자비의 등불을 밝혀 변혁시켰다"며 "자비는 일상생활 가운데 불자들이 실현하고 구현해야할 사회적 보편가치이자 정의"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불교에서의 정의는 진실한 생각이며 이는 곧 자비이자 부처님"이라며 "정유년 새해에는 견해를 같이하고 이익을 고르게 나눔으로써 화합하는 동체대비의 등불을 밝혀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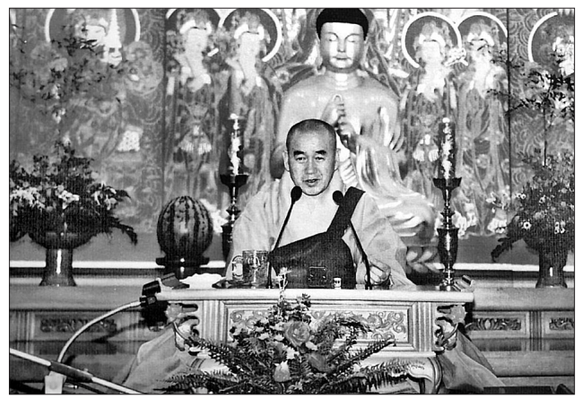
45년史 부산불교거사림, 1000회 특별 법회

2월 14일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에서

1972년 김기추 거사 강의 시초 이후 45년 간 월 1회 정기법회 연 평균 20만 재가불자 참석 250명 이상 승 · 재가 법사 초청 종범 스님 특별 기념법석 마련



1994년 10월 25일 부산불교거사림회 회원들과 대중들이 통도사 부산포교당 불지사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모습.



종범 스님(사진)은 1975년부터 상임 지도법사로 부산불교거사림회 회원들을 위한 법문을 펼쳤다.

불교에서 '림(林)'이란 한자의 의미는 특별하다. 숲을 의미하는 '림'은 단순히 '많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그 가운데는 작고 어린 생명부터 큰 동물들의 터전이 되고 안식처가 된다. 부산 불교를 위해 든든한 숲으로 자리해 온 거사들의 모임 '부산불교거사림회(회장 공병수)'가 특별한 법석을 맞이한다.

무려 45년 동안 매달 2째 주 화요일 봉행된 부산불교거사림회 정기법석이 1000회를 맞는다. 이를 기념하며 부산불교거사림회는 2월 14일 오후 7시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에서 제1000회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1000회 특별법회는 개회 전 먼저 축하의 뜻을 담은 시낭독과 축하공연무대가 마련된다. 이어 삼귀의 및 보현행원, 반야심경으로 마음을 모으며, 발원문 낭독을 통해 부산불교거사림회 의지를 전달한다.

아울러 부산불교거사림회는 안성이 보현회장 외 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부산불교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한다. 축사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과 류진수 고문(前 부산불교신도회장)이 나선다.

특히 법사 스님으로는 前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 스님을 초청한다. 거사림회가 종범 스님을 1000회 법석에 모신 이유는 특별했다. 1975년부터 상임지도법사로 부산불교거사림회의 주춧돌처럼 법석을 지켜줘 거사림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부산불교거사림회는 "법석을 기획할 때 만장일치로 스님을 모시기로 마음 모았다"며 "1000회 동안 종범 스님이 법문해주신 것이 총 359번이다. 중앙승가대 총장을 하시고 바빠지셔서 매달 참석이 어려우셨는데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찾아 주신다"고 감사했다.

이어 "종범 스님 은덕이 정말 크다. 스님이 오실 때 마다 청중이 많이 왔다. 그 때는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아 법문에 대한 목마름이 컸다. 42년 동안 저희 대중에게 부처님의 뜻을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거사림회는 1972년에 창건됐다. 부산 영도 도서관에서 3주간 열린 백봉 김기추 거사의 〈금강경〉 강의에 참석한 불자들이 모인 것이 시초가 됐다. 더 수행하고 배우기 위한 발심이었다. 이후 매회 법회 마다 참가인원이 증가,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부산 서면 부전예식장과 새마당 예식장 등에서 법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상임지도 법사인 종범 스님과 지안 스님, 지오 스님 외에도 고암 스님, 경봉 스님, 향곡 스님, 무진장 스님, 경산 스님, 구산 스님, 진제 스님 등 당대 최고의 선사와 이기영 박사, 홍정식 교수, 정병조 교수 등 350여명 이상의 승 · 재가 법사가 자리해왔다.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기 힘들었던 당시 신도들에게는 최고의 법석으로 자리매김하며 연 20만 명의 불자들이 참여했다. 법석 뿐만이 아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정리해 담아 〈연꽃처럼 아름답게〉와 〈서천에 돋는 해, 광명의 지혜〉 등을 출판해 무료로 나눠주며 법공양 운동을 펼쳤다.

공병수 회장은 "우직하게 한길로 가고자 했던 회원들의 열정이 만든 결과이며 부처님의 가피이자 기적"이라며 "이 법회가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빈여의 등불처럼 영원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BBS 22주년, 방송포교 위한 불사 동참의 장

2월 1일 부산BBS 10층 법당서 후원금 전달식 개최



BBS 부산불교방송이 2월 1일 개국 22주년을 맞아 후원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관 스님, 수불 스님, 주석 스님, 이대원성 연꽃모임 회장.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 이하 부산BBS)이 개국 22주년을 맞았다. 이를 축하하며 부산BBS의 숙원 사업인 북항 신사옥 건립 동참 후원이 이어졌다.

부산BBS는 2월 1일 부산 사옥 10층 법당서 후원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서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 이대원성 연꽃모임 회장 및 회원 10여명은 미래 방송 포교를 후원하며 기금을 전달했다. 기금은 각각 원오사 1000만원, 대원사 1000만원, 연꽃모임 2000만원이다.

전달식에서 이대원성 회장은 "지난 1월 16일은 연꽃모임 40주년이었다. 짧게 축하하는 자리를 열기보단 영원한 잔치로 남을 도량 불사에 참여하기로 모든 회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지난해부터 사옥 건립을 후원하고자 했는데 개국 22주년을 맞아 동참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전달했다.

사장 수불 스님은 "신사옥 건립은 부산 불교의 자존심을 넘어 한국불교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오늘 동참해준 정관 스님, 주석 스님 그리고 이대원성 회장님께 깊이 감사하다"며 "오늘 개국 기념일임에도 큰 행사 없이 진행하는 것은 허례의식을 버리고 모든 힘을 모아 불사 건립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BBS는 개국 22주년을 맞아 특별생방송을 진행하고 방송 포교를 위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생방송에는 수불 스님, 주석 스님, 선상신 사장, 이대원성 회장, 지은아 아나운서가 참여했으며 BBS불교방송의 방송포교를 이끌어갈 10만 공덕주를 모시는 '만공회'의 활성화를 기원했다.

부산BBS는 지난 1995년 2월 1일 부산 · 경남 불자들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출발했다. 개국 22주년을 맞은 올해는 '세상의 희망인 당신을 응원합니다'란 슬로건으로 시민과 불자들 곁으로 더욱 다가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성미 기자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사교과에서 활안큰스님 "석문의범" 특강이 있습니다.
◇ 원서교부 : 2017년 1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7년 3월 7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김익순교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천도재의식 및 권공의식, 작법무
◇원서교부 : 2017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3월부터 3개월간 예수재의식 특강이 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